

## 성대폴립 환자를 대상으로 한 GRBAS 척도와 MDVP 측정치 간의 상관관계 연구

표화영\*, 최성희, 임성은, 심현섭\*, 최홍식, 김광문  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음성언어의학연구소,  
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언어병리학 협동과정\*

**배경** : 음성평가지 그 음질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중 주관적 검사로서 많이 쓰이는 것은 GRBAS 척도에 의한 청인지적 4단계 평정이고, 객관적 검사로서 널리 쓰이고 있는 검사 도구는 CSL 중 MDVP이다. 이중 GRBAS 검사는 평가자의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며, MDVP에 의한 음성평가는, 나타난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요구한다.

**목적** : 이에, 1차적으로 음성과용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, GRBAS 척도에 의한 청인지적 음성평가 결과와 CSL 중 MDVP에 의한 객관적 음성평가 결과에 대한 상관성을 비교, 분석해 보고, 이를 통하여 청인지적 음성평가에 숙련되지 못한 평가자가 객관적 검사도구를 통하여 음성평가를 하고자 할 때 주목해야 할 변인들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.

**재료 및 방법** : 본원 음성언어검사실에서 음성정밀분석 검사를 받은 환자 중 성대 폴립 환자 30명을 실험대상군으로 선정하여, CSL 상에 저장되어 있는 이들의 '아' 연장 발성을 3인의 숙련된 음성언어치료사가 GRBAS 척도로 청인지적 음성평가를 실시하였다. 이 결과를, 같은 발성을 MDVP 분석함으로써 나타난 수치적 결과와 비교하여 그 상관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조사하였다.

**결과** : GRBAS 척도 중 G 척도와 MDVP 분석에 의해 객관적 수치가 제시되는 29개 변인 중 22개 변인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( $p < 0.05$ ). R 척도와는 18개 변인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파악되었는데, 이중 두 변인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. B 척도에서는 17개 변인에서, S 척도에서는 12개 변인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, A 척도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이 없었다. 대체로 음성의 강도 변이와 음도 변이에 관련된 변인에서 상관관계가 높았으며, 이중에서도 강도 변이와 관련된 변인의 상관성이 전반적으로 높았다.

**결론** : 위에서 본 바와 같이 MDVP의 결과와 GRBAS 결과의 상관성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G, R, B 척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많이 나타났다. 따라서 음성과용을 주소로 내원하는 성대 폴립이나 성대 결절 환자들의 음성평가에는 이러한 변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. 그러나, 이 결과는 음성과용에 의한 음성장애 환자들에 대한 결과이므로 추후에는 성대 마비 환자나 연축성 발성장애 환자와 같이 A 척도나 S 척도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도 이 실험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.